

전북자치도민회 중앙회, 전북 7대 공약 대선후보에 제안

균형발전 · 혁신성장 담다

하계올림픽 유치 · 새만금 완성 · 완주-전주 통합 등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회장 곽영길·사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 혁신성장'을 위한 전북 7대 핵심 정책 공약을 각 대선 후보에게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수도권 중심 체제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전북을 국가 신성장 동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적 비전을 담고 있다.

도민회는 해당 공약이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닌,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통합적 발전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전략임을 강조했다. 공약안은 '전북발전과 지방통합상생 TF'가 중심으로 되어 마련됐다.

첫 번째 공약은 '2036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이다. IOC의 지속가능한 올림픽 비전에 발맞춰 지방 분산형 개최를 추진하며,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새만금 완성'이 제시됐다. 새만금을 국가 미래성장 거점으로 삼아 국제공항 확장, 제2국가산단 조성, 신항만 개발, 철도망 확충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회계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제안됐다.

세 번째 공약은 '전주-완주 통합'이다. 주민 중심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통합특례시 출범을 지원하며, 인구기반 강화, 보통교부세 인상, 통합청사 건립비 증액 등의 행정·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네 번째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이 포함됐다. 탄소·첨단소재, 바이오산업, AI 농생명 산업 등 전북의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K-방산허브 구축도 포함돼 있다.

다섯 번째 공약은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이다. 새만금 국가정원, 국립산림약용식물단지, 전주 K-레이크, 만경강 빛꽃길, 남원 스포츠훈련원 등과 내륙관광철도망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섯 번째는 '전북특화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이다. 전북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통합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해 농촌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일곱 번째는 '스마트 농식품 혁신특구 조성'이다. 새만금을 네덜란드 푸드밸리 수준의 글로벌 농식품단지로 육성하고, 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과 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민회는 MICE 산업지구, 청정에너지 벨트, 미래인재 육성특구, 창업금융산업단지, 동학혁명 역사특구 등 다층적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 발전의 시너지를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SOC 확충 방안으로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철도 업그레이드, 전북 동부권 산악 관광철도 등을 제안했다.

도민회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국가 전체 발전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도민회는 약 1,500명의 회원이 광역급 회장을 중심으로 고령사랑기부 등 전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서 자존심 세울 만큼의 지지 기대”

이정현 국힘 호남 선대위원장 “30% 득표 희망”

이정현 국민의힘 호남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2일 오전 전북북부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전북이 자존심을 세울 만큼의 득표만 얻어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라며 “30% 수준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선거 목표치에 대해 미리 수치를 말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건방지게 보이는 일”이라며 “유권자는 호주머니 속 동전이지, 아니냐”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유권자의 선택이 점점 합리적이고 조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과 호남에서 보수정당이



변화된 정치지형 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화의 세 가지 요인으로 △성숙한 유권자 의식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탈진영·탈지역주의 성향 △SNS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 공유의 촉진 등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전북에서 보수정당이 선거 때마다 지속적으로 적은 수치이지만 늘 상향의 지지율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들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

과가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맞는 말씀이다. 비상계엄은 현재에서 전임임치의 관해 판결을 받았던 것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의힘이 호남을 외면했던 것, 좋은 인재를 세우지 못했던 것, 지역 현안을 소홀히 했던 것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호남 사람들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37년째 민주당이 싸늘이해 온 정치 구조도 정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집권 정당이 특정 지역을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건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호남 출신 보수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신이 강한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현직교사 국힘 선대위 임명장 발급 ‘파장’

민주김윤덕 의원 “즉각 수사를”

최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대위가 불특정 현직교사들에게 선대위 임명장을 발급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총괄본부 회의에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덕 사무총장(사진)은 22일 열린 총괄선대본부 회의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즉

각 수사를 요구했다.

김문덕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파렴치한 선거 범죄와 민생을 침해한 사기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문덕 사무총장은 최근 이재명 편드를 개설하지 못한 이유로 피싱 사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격정한 고려했다고 밝힌바 있어, 민주당이 피싱 사기와 불법개인정보 이용 등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희성 기자

“어려운 도내 골목상권 살릴 책임자”

나들가게 소상공인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선언

전북 지역 골목상권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합원 6,900명을 보유한 나들가게 소상공인협동조합(회장 송성호)은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야말로 소상공인의 현실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전폭적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합 임원진과 회원 20여 명을 비롯해 전북도의회 김희수 부의장,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최서연 시의원 등이 함께해 지역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구은아 사무장은 “전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창고 하나 없이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소량 구매하고 있다”며 열악한 유통 구조를 토로했다.

구 사무장은 이어 “창고도 없고, 배달 인력도 없고, 공급처도 없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들가게 협동조합은 “전주에 10



도내 나들가게 소상공인들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의실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평짜리 공동 창고를 하나만 지어주 시고, 농축산물 직거래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3명의 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신다면,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이 생긴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구체적인 정책 건의도 덧붙였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골목상권을 되살릴 마중물이라며, “실질적인 소규모 지원 하나만 지역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성호 회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

진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은 많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듬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이재명 후보의 ‘균형 감각’ 있는 정치철학에 큰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소외된 상권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①전북지역 경제인 1만명의 대표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②같은 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③같은 날, 전북권역 대학생 123명의 대표자들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외치고 있다. ④도내 문화예술인들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전북 경제인 1만명 등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움직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북 1만 경제인 “지역경제 살릴

실현형 경제대통령” 전북에서 1만여 경제인 가족이 22일 아침 일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나들이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 전북공예협동조합, 전북관광상품사업조합, 전북가구협동조합 등 13개 단체가 기자회견장에 함께했고, 30여 개 단체가 동한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말이 아닌 실적을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라며, 위기에 빠진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 제조업의 부활을 이끈 실현형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호영 의원과 지역 경제인 20여 명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

▲수산업경영인 전북자치도회 “해양

수산 공약에 높은 기대” 수산업경영인 전북도회 회원 10여 명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는 어민의 삶을 이해하고, 바다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제시한 후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어업인들은 이 후보의 해양수산 관련 공약에 주목했다.

이 후보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 해양투기에 대한 강력 대응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추진 △수산업의 첨단화 및 스마트화 △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어민 소득 보장 확대 △청년 어업인 육성 및 귀어·귀촌 지원 강화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양생태계 보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북 대학생 123명 “123 내란 극복하고 전북의 미래 열자”

전북 지역 대학생 123명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상처를 넘어 통합과 희망의 대한민국, 그리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지지 선언 배경에는 전북의 낙후된 현실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담겼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만이 전북에 실질적인 발전과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생들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을 통해 교육 개혁, 청년 일자리, 기후 위기 대응, 지역 문화 정책 강화 등 4대 과제를 이 후보에게 요청했다.

▲도내 문화예술인 425명 “이재명 도

구 삼아 K-문화강국 건설” 전북 지역 문화예술인 425명도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문화예술인 대표 20여명과 박정규 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보장 △청년 문화예술인 기본생활 및 창작환경 조성 △전통문화 전승과 발전을 위한 환경 구축 △문화복지 제도화 공약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이라는 도구로 삼아 민주주의와 민중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을 이루며, 문화예술이 융성하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K-문화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만호 기자